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Sung Ok Cho, Publisher
S. S. Kim, Editor

VOL. 8 NO. 6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EMBER 1979

秋色有



워싱턴주의 사과는 국내 시장에서 으뜸이며, 복숭아, 배, 석양오얏 또는 자두(Plum), 감자, 배추, 콩, 아스파라거스, 실양수수, 가 중요한 농산물이다. 낙농업이 활발하고, 목재업과 펄프 산업이 있고, 알루미늄, 화학품, 제철, 그리고 기계류의 생산이 많다. 오늘날에는 온 과 연(감식등), 아연이 주로 나오며, 작은양으로 금 과 식량, 구리, 가 나온다. 어업으로 약 200개의 상업용 종류가 있으며, 연어만도 다섯가지가 흔히 거래된다(치녹, 삼아이, 로모, 분홍송, 참).



이 도시의 이름은 원래 인디언 추장 "실트"(Sealth)가 사는 곳이 라고, 탐험하러 왔던 백인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헨리. 예슬러"(Henry Yesler)가 처음으로 목재소를 만들었으며, 빠른 나무를 언덕에서 굴리는 "스킵 로드" (Skit Road) 을 만들었으니 지금의 "예슬러 스트리트" (Yesler St.)이며 "킹. 카운티" 사무실 옆에 있다. 이 목재들은 주로 상항에 수출 되었으니, 이때가 1857년이며, 1865년에야 겨우 작은 부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락에는 총구가 하도 많아서(처음에는 15명가량) 경제 사정이 좋고 신고사가 있어서 모든 사냥을(인디언 등) 다 확립할수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할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때서 대표가 된 "아사. 멀서" (Asa Mercer)가 동부로부터 가서 용감한 신부랑 11명을 성공적으로 데리고는 왔으나 많은 사람들 에 총과 11명만 가정을 마련할수 있었다. 할수없이 얼마후에는 독립전쟁에서 과부된 여성들 약 백여명을 수입하였으며, 이때에야 "멀서"씨 자신도 겨우 부인을 맞이 할수 있었다. 그후 1869년에 도시의 체도를 갖추어 갔으나 20년후에 온 화재로 다 없어졌다.

1897년에 "브론 다이오" 금광이 열리면서 다시 번성하였고, 1898년에는 처음으로 대륙횡단 기차를 놓게 되었다.

시애틀의 기후는 항상 온후하다. 여름은 약 70여도(화씨)이고, 겨울은 약 45도 가량이다. 가장 추운때가 정월과 이월이며, 35도가 된다. 비는 82%가 일년동안에도 70월 부터 4월 사이에 다 내린다. 일기예보는 전화로(662-1111) 알수 있고 높은 산의 도도 상황은 11월과 3월 사이에 전화(464-6010)으로 하면 된다.

시애틀 근교에 살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1. "블레이크 섬의 국립 공원" (Blake Island Marine State Park)

시애틀 앞 바다의 가운데에 있는 섬이며, 캠프, 낚시, 조개잡이, 수영, 피크닉, 시설들 잡되어 있다. 면적이 476 에이커(acre)이다. "틸리쿰" 은 (Tillicum) 은 관광으로 유명한 통나무집안에는 인디언 조각품과 춤, 그리고 언어구이가 진이다. 제 56 부두에서 배를 타고 약 한시간 가는데 아침 11시 부터 저녁 6시까지 열고, 성인 \$75.00, 어린이 \$6.00,



애기(3-4세) \$4.00, 이고 예약은 329-5700 으로 할수 있다.

- 나. "에버그린" 부교 (Evergreen Point Floating Bridge)
워싱턴 호수의 가운데에 있으며 세계에서 떠있는 다리로 가장 긴것이다. 3 mile, 33개의 부교가 연결되어있다. "부토"
- 다. "소방소" (Fire Station No. 4)
세계에서 제일 큰 소방선(배) 이 있다. 형편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밭수 있으나 6살 미만의 어린이는 안된다. 주소: 2550-26th Ave S.W. Seattle 전화 625-4091 "부토"
- 라. "일본 정원" (Japanese Tea Garden)
워싱턴 대학교의 식물원 안에 있다. (5 acres)한국 식물도 있으며 일본 건축가에 의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 5월 1일-9월 30일 동안은 아침 10시부터 석양까지 열고 그 외에는 아침 10시 부터 저녁 5시 까지 연다. "부토"
- 마. "킹덤" (Kingdome)
실내 체육관으로 음악 순서와 무연 박람회 등 다채로운 연중 행사가 있다. 있는 날에는 아침 11시와 오후 1시 그리고 3시에 관광순서가 있으며 입장료는 성인이 \$7.50 이고 어린이는 \$6.65 이다. 주소: 2nd Ave South & King St. 전화: 628-3331
- 바. "워싱턴 호수의 수문" (Lake Washington Slip Canal and Locks)
미국에서 가장 큰것들중 에 속한다. 7 acres 바다와 호수물이 "유니온" 호수와 "워싱턴" 호수 에서 드나들며 배가 이곳을 지나간다. 남쪽편에 가면 유력장으로 생산들이 사다리로 오가는 모습도 볼수있다. 연어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때는 6월과 11월 사이 이다. 개관은 6월 15일 부터 9월 15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8시이고 배가 지나가는것을 감상볼수있다. "부토"
- 사. "태평양 과학관" (Pacific Science Center)
시애틀 센터에 있으며 인디언 집 등 과학자료들이 많다. 주로 아침 10시 부터 오후 5시 이고 성인은 \$2.00 18세 이하나 67세 이상은 \$1.00 이다.
- 오. "시애틀 수족관" (Seattle Aquarium)
제 59 부두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지각색의 바다 환경과 생산들을 볼수있다. 주로 아침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개관 한다. 성인 \$2.50, 13세 부터 18세, 그리고 65세 이상은 \$1.25, 6세 부터 12세까지는 \$0.75 이다.
- 자. "시애틀 예술 박물관" (Seattle Art Museum)
"보론 미술" 공원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양 예술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유명한 그림들과 최고도의 예술품과, 중국 인도의 보석들이 있다. 아침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개관 한다. 성인 \$7.00, 학생과 67세 이상은 \$0.50 12세 이하의 부토이다.
- 차. "시애틀 센터" (Seattle Center)
세계 박람회를 1962년에 가졌던 곳이다. 모든 문화적 활동의 본부가 되며 "오페라 하우스" 도 있다.



경로 이를 방문만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여론이 이를 업종이 구만하고 그때도 시정이 안될때는 번으로 이를 처벌 하거나 해산을 시킬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할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결코 필자의 사견이나 편견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필자의 미국 거주 5년, 이년간 신문 보도를 통해 얻어진 지식 이라는 것을 여러 명기에서 필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남의 나라 미국에서 우익의 일상 공상생활이 항상 광경정대에서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됨으로서 우익들의 사회적 입장이 더 현저 해지고 더 밝히 중심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에서 필자의 국거의 견본과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썼다. 만약에 미국에서의 조직생활을 통해 우익사회발전을 촉진시켜주는 어떠한의 참고가 될수 있다면 심토 망외의 행인가 한다.

1. 조직이란 말의 뜻

사전을 보면 "조직"이란 "심마리를 모아 직조를 한다" "생아 올린다" "계개의 것을 모아서 집어있는 입체를 구성한다" "인위로 조직 한것을 도덕으로 꾸고 꾸는다" 그리고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조직의 목적

그는 물론 조직원 상호의 인격충실과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에 있다. 그리고 이 조직의 향상 발전은 이 조직 자체로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탄생시켜주고 그 조직을 조종해주고 그 조직을 육성해주는 사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사회자체도 이 조직이 향상 발전하는 그 만큼 사회의 향상 발전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 조직을 통해 향상 발전 할수 있는 그와 같이 조직을 통해 사회발전을 촉진할수 있고 사회도 조직을 통해 사회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 조직과 사회와의 관계는 이같은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그 영고 성취를 같이 해간다.

3. 조직의 기반

조직의 기반은 대중이다. 조직을 발기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과 행동을 같이 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구성원으로 해서 조직을 한다. 가끔적이면 보다 많은 사람들 그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뜻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많은 힘이 생긴다. 이 힘이란 육체적 힘보다 정신적인 힘, 즉, 지력, 지식, 경험을 서로 결합, 조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울하는 작은 재력을 만든다. 목적을 위해 집중된 인력, 지력, 재력의 총화를 가지고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큰일 즉, 공범위 하게 맡아서 사회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 성의로서 일치단결 할때에 비로서 그 지반이 경고 해질수 있다.

4. 조직의 유별

사회의 발달과 직업의 전문화를 따라 현재에 와서 조직의 종류는 사람의 직업의 수 만큼이나 많다고 보아야 겠는데 이를 발생별로 대별해서 자연 발생적 조직(전통적 조직)과 인위적 조직(법적조직, 임의적 조직)이 될것이다. 자연발생적 조직이란 가정, 동네, 사회가 될것이고 법적 조직이란 국가와 국가의 변역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의결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지방자치조직, 국영기업체, 노동조합등이 될것이고 임의조직이란 법과 도덕의 범위안에서의 상호 조직인대 친목회, 문화단체, 사회단체, 사회사업단체, 동업조합, 종교단체, 등이 될것이다. 다음 회보 연재



김현길 박사

시애틀은 미국의 북서부에 있으며, 워싱턴주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다. 이곳은 국제적이며, 산업적이고, 종교적인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하다.

가장 높은 "맥이니아" 산(14,410 피트)은 배두산 보다도 5,000 피트나 더 높다. 맑은 물이 호수와 강, 그리고 바다에 풍부하며 산천조류가 우거졌고, 깊은 온천과 취미를 즐길수 있는 도시이다.

국제 공항에는 수십만의 여행객이 매년 통과 하고 있으며, 관광 시설이 좋아서 세계 무역의 관문이 된다. 약 200개의 중요산업시설이 있는 중에도 "보잉" 비행기 회사에는 73,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한국사람들만도 약 백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시애틀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과 시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내에는 여러 무연상사와 외국상당들이 있으며, 외국인들의 왕래도 잦다.

시애틀이 속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주청소재지 "행정 수도"는 "올림피아"이다. 이 주의 크기는 대한민국 영토(38,031 Sq. mile)보다는 약 두 배 정도이고(68,192 Sq. mile) 한반도 전체 보다는 좀 작다. 한국의 인구가 38,195,000(1977)에 비하여, 워싱턴주의 총인구가 (3,611,000) 열배나 작다. 시애틀시에는 인구가 504,000이며, 근교를 다 합하여 1,396,000이 된다.

이 지역은 또한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며, 이곳의 농사는 40% 이상이 수저관리가 필요 없으며 수력발전으로 30여개 이상의 댐 시설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도 수출하고 있다.

산업 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김 경 문 (부속 생업 보험 근무)

미국은 노동자의 나라이다. 노동자의 92% 이상이 모두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이란 물론 손, 발, 몸통을 주로 쓰는 육체노동 이외에도 사무실에서 연필이나 머핀과 같이 하는 일도 포함된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간에 엄격한 계약에 의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다. 따라서 권에도 이른상으로서는 역사적으로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서게 되기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측에 부당하게 착취 또는 이용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 횡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고용주를 감시하고 권익이 이익, 작업환경, 대우, 임금, 고용조건 개선에 의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노동자의 나라 미국이 바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본가들에 입장은 약하게 마련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선량하고 성실한 노동자라 해도 기업체의 돈벌이에 필요로 없거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고용주의 눈에 거슬리게 된 노동자는 승진의 길이 없거나 해고는 물론 심지어 해고나 파면까지도 곧장 당하게 쉬운 노동자의 처지이다.

실사 파면당한 노동자가 불만을 품고 노사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며도 시간, 경비, 노력면에서 괴로움을 더 당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부당함을 상감 조차도 않은 것이 현실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자기의 권익을 갖는 것이 부당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굴러 아저씨"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둘째, 처음부터 이 사회의 "세스텀"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있다고 본다.

우미 안인 고소득의 임장은 두 번째 속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현재 재미 고도의 90% 이상이 최근 10년내에 건너온 "근짜 이민자"들이다. 이나리에 온 것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더욱이 미국법에 법률을 몰지 않자마자 상환본금을 해결하는 데 급하여 우선 되고 삼고 집과 자동차를 장만하는 의외에는 다른데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본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자기 몸보살 이유는 언어 장벽에 있다. 많이 잘 안들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어 하다가도 포기해 버리고 만다. 사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미국에서 풀 풀만 교육 수준과 직업 경력을 갖춘 본들이 취업권을 안고 육체 노동에 뛰어들어 당파가 없는 어찌가서 경쟁을 당하는 본들이 많다. 그러므로 언어 장벽은 미국 생활에 있어서 우미에게 있어서 이중 삼중의 괴로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미가 알아야 할 임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민자 90% 이상이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보우 미국인을 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어떻게 우미가 노동자로서 우미의 권익을 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식을 갖는 것은 금전부족의 하나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본들은 만일 도와 같이 남지 않는다면 어떤 지면을 통하여 계속 안내, 홍보 하는

계급가 지우 있게 될 바이다. 편자는 여기까지 우미 안인 노동자가 아무 이익 없이 받게 하는 데 산업 재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Worker's Compensation이란 무엇인가?
 (직업 관련 노동자 보상 보험)이란 모국에서 일하는 산업 재해보험과 같은 임종 재해보험으로서 직장에서 작업 또는 근무 중 부상을 당했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그와 같은 불구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와 손해를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업 보상 (Unemployment Compensation) 이나 사회 보장 (Social Security) 보험 등과 별도로 구분된다.

이제 와싱턴 주에서는 이 보험의 보편성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분담하여 지불하거나 대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모든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고용인들에 대하여 주 노동국을 통하여 이 보험의 혜택을 들어 주어야 한다. 단 재해회사에서 충분한 책임금을 가지고 고용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승낙을 노동국에 보여 특별 허가를 받는 경우 예외이다. 이 경우 재해회사의 혜택은 노동국에서 실시하는 보상 보험과 똑 같아야 하며 노동자들이 입하는 장소에 반드시 제시하여 암묵히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보상 보험의 목적은 고용주와 고용인들 동시에 보호하려는 데 있다. 회사의 경신 고용인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입산 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 시작하게 된다는 근무 상충을 근거로 하는 고용주나 동료 노동자: 개인 소송권을 포기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직계 고용주나 같은 회사 내의 근무 중 동료 노동자를 제외한 제 삼자가 자신의 근무 중 부상에 관련이 되었다면 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삼자는 개인 또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작업 중 상상이나 또한 그에 대한 혜택의 범위와 대한 노동국의 결정이나 회사가 부담하려고 느끼게 될 때는 용납해야 주 정부에 있는 노동국에 언제라도 직접 재고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주 노동국에서 자신의 재고 신청을 60일 이내에 해결하여 주지 못할 경우는 Board of Industrial Appeals (산업 재해 상소국)에 서면으로 상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또한 있게 된다.

누가 이 보험의 혜택의 대상이 되는가?

이 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법으로 고용주를 의무화 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나 노동자들은 그 외의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용주와 고용인들 둘이 자의로 동의하여 주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노동국의 승인을 받고 들어 올 수 있다)

1. 임인 고용주나 파르니 인 경우 (임인인 가족 단위를 제외할 수 있음)
2. 경리장에서 맡고 있고 시합하는 기술들
3. 집안의 가정부나 하인을 임인인 고용할 경우, 그러나 2인 이상을 임용하여 40 시간 이상을 고용하게 될 때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다.
4. 개인적인 수리, 보수, 경연인, 청소 등 10일 이상을 계속 하지 않는 임용을 하게 될 때 그 개인적인 주인은 의무가 없음.
5. 저신 또는 종고 단위로 부머 받은 도용의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 단체는 그 사람들이 재해보험을 들어 줄 의무가 없음.

CETA PROGRAM
영어와 직업 교육

우미 안인 사회에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에서 지도 하고 있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 O I C (Seattle Opportunities Industrialization Center) 와 구 정부 니비 대학 (Community College) 기술 교육을 주선해 주고 있는 것을 아시는 본들이 계시거나 모드시는 본들을 위하여, 또한 새로 바꾸어진 구직을 알리기 위하여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CETA 프로그램이란 어떤 주 자제로 나뉘어 있다. CETA JOB (세바에서 돈을 받는 직업) 과 CETA TRAINING (세바에서 돈을 받으며 받는 기술 교육) 이다. 지금 여기서는 CETA TRAINING 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편자가 담당하는 본 야가 CETA TRAINING 이기 때문이다. CETA 프로그램이 1973년 부터 시작된 목적은 기술이 없어서 취직 못하고 있는 본들에게 기술을 갖춘 시업내에 가르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외국 사람이 많이 있는 구역에는 ESL 영어 공부도 CETA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미 고민 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영어 교육은 본국에서 좋은 기술이 있었으나 언어 장애로 본편을 느끼는 본들과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어도 별로 활용을 못했던 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서은 것은 조금 반이 없는 관계로 영어 교육 혜택을 받으려면 중급에 해당하는 실력이 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은 한국에서 기술을 배웠어도 미국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본들이 다시 여기 식으로 배울 수 있고, 전혀 기술이 없는 본이라고 할지라도 취미 있는 본 야가 있으면 편하여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

CETA 프로그램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은 대부분이 지난 6 개월 동안 가정 수입이 많지 않았고 본으로 현재 PART TIME 으로 일하고 계시던가, 일을 임용 등 안 못 하신 본 이면 대상이 된다. **로자. (孝子) 로니. (孝女)** **임부. (養母) 임니. (養女)** <선발>

본 와싱턴 세이를 안인회에서는 민족 전체의 미용 양육을 기리고 재 다음과 같이 로자. 로니. 임부 (임니)를 선발 포상할 계획이오니 많은 추천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 세이를 거주 안인회원
2. 선발인원: 5명
3. 선발 지역: 주부 발표
4. 포상 일시: 년말 아미팅의 밤
5. 추천: 고포 추천인 3명 이상 시람
6. 추천 마감: 1979년 11월 20일 까지

와싱턴 안인회장 조 성숙

이것은 이번 세로 나온 규격에 따른 것이다. 자격에 대해서는 가장관과 편자는 푸로그랩에 따라 조금과 다르기 때문에 카운셀링 (COUNSELLOR) 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편자가 담당하는 구역은 세이를 KING COUNTY 와 SNOHOMISH COUNTY 에 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어와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와 보편 출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월 페이 (WELFARE)와는 달리 자격이 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영주권 이상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여기 쓴 글은 1979년 9월 12일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규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법규가 자주 바뀌게 되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COUNSELLOR 에게 연락하면 그 당시에 해당하는 소식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721-4205 로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차원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미 서북부에 거주하시는 우미 고민들, 모두 즐거운 직장 생활과 행복한 가정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자: 와싱턴주 직업안정소 근무 카운셀러)

우 수 생 모리

구번 안인회에서는 79년도 우수 상을 모집 합니다.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국민학생 1명
 구 학년에서 전 학기 (79년)에 전부 A 학점이 학생으로
 마 학생의 모범인 학생으로 만인사회의 고포분으로서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단: 국민학생은 우수 학생으로 성격표에 기록된 학생)
 제출 서류: 1979년 성적 증명서, 추천서 일부.
 포 상 일시: 년말 아미팅의 밤
 추천 마감: 1979년 11월 20일

이상이 법으로 규정하는 산업재해 보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혜택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이렇듯 법으로 규정된 당연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앞서 밝힌대로 언어의 장벽, 낯선 시스템 또는 인종의 편견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부주의하게 처리되어 갔고 있는 권리를 못 찾을 경우가 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경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 재해 보상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분은 필자에게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 뉴욕 타임즈 근무)



News 뉴스

(한인회)
지난 7년동안 어택은 고인들의 대변자로 한인회보의 편집인으로 항상 남색계 수고해 주신 한 명목양께서 지난 9월 3일부 다른직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명목양같은분이 우리 한인회로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지만 본인의 발전을 위해 떠나시는 것이니 섭섭하나마 알남을 기원합니다. 후임에는 미세스, 조종은씨가 고민어택부의 상담에 협조해 드립니다.

(한인 학교)
세애크 한인회 산하 한글 학교는 총영사관으로 부터 재정 지원과 학습 교재용품을 보내 주셨습니다.
초.중.고.교과서 241 권, 국사교육용 슬라이드 547매 국어 학습용 교도 3매 등입니다.
어택은 한글 학교 재정에 큰 지원을 보내신 총영사관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심명 부흥회
부흥 강사 고원용 목사
입시 : 9월 27일 부터 9월 30일
주소 : 714 66th 138th TACOMA
Wa 98145
연락 장로 교회 담임 목사 육병호
교회 전화 535-0430

(영사관)
세애크 고민사회 발전 과 국위 선양의 기수로 많은 공적을 남기신 남 후수 영사께서 9월 20일부터 일본 후쿠오카 시 총영사로 영전, 축하 드립니다.

(여병 동지회)
금번 워싱턴주 여병 동지회(회장 조 상백)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제향 군인회(이맹기)의 초청으로 국군의 날 행사에 워싱턴 여병동지회 부회장 김두영씨가 9월 27일 출국, 5 일간의 일정으로 전방시찰, 및 산업시찰을 하게 되었음으로 고민 어택부들께 알뜰 드립니다.

중 앙 식 품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한국인의 밥.....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킵니다!

한국 음식. 신상. 한국생선. 특용. 선물용. 특용. 경축도. 기타 생일용 일체	영업 시간 월요일 10A ~ 9시 일요일 12A ~ 6시
---	--

중 앙 식 품
9641-15th Ave. S.W.
Seattle Wa. 98106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It is the Association's multi-service center staffed by three full-time workers, one administrator/Program Director, one Administrative Trainee, and a Health Care research Specialist, whose positions are CETA-funded through th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of the State of Washington.
Its operating expenses are being met by donations and membership dues. Please note that our Korean Community in general has had a visibility problem, as our people are often grouped and treated as one of the Japanese and Chinese communities for their look-alikeness. Our people are relatively new-comers compared to Japanese and Chinese, and for this reason unemployments and social problems among our people are greater. Thanks to the State's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which made the operation of the Center possible by providing the two CETA positions. In fact, this is the first, major act done by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our community. Many thanks to the Governor Ray.
From Aug 1979
The following services have been provided by the Center:
(1) Job Referral (11)
(2) Employment Counseling(20)
(3)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13)
(4) Finding shelters and apartments(4)
(5) Domestic problems and counseling(12)
(6) Referrals of legal services(5)
(7) Health care counseling and research activities(6)
(8) Ride/transportation provided(7)
(9) Telephone calls and inquiries(10 to 18 a day)

6. 일정한 계절에만 일을 하는 농장노동자들로서 한고용주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이 년 \$750.00 을 초과 하지 못하는 경우
7. 경찰, 소방서 등과 같이 자체내에서 산업보상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령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근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다음의 세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근무중 부상이란 사실을 고용주, 또는 foreman, supervisor 에게 즉시 알릴야 한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 부상경위를 즉각 보고하는 것은 법으로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될때는 담당 의사에게 어떠한 경위로 근무중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회사로 하여금 노동청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의 질문은 의사와 부상당한 사람에 의하여 완전히 작성되어야 하고 또한 두사람의 서명이 기입되면서부터 보험청구의 정식서류가 간주하게 된다.
3. 사고 보고서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한다. 이 보험의 혜택은 본인이 제공하는 정상시의 월급 (기혼자의 경우) 부인과 아이들의 이름, 연령 등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중요시 하게 된다.
부상한 고용인이 이상의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게되면 수일내로 노동청으로부터 자신의 서류가 기록되었다는 청구서번호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설명서를 우편으로 받게된다. 보험의 청구는 부상을 당한 날자로 부터 일년이내이거나 또는 담당회사로부터 자신의 부상이나 병이 근무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때로부터 일년이내 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부상당한 노동자가 법이 규정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혜택을 다 받았다고 간주될때 그 청구서류를 종결시키게되나 그 부상이나 병이 재발되는 경우 7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서류를 재심 시킬수 있다.

- 보령혜택은 어떤것인가?**
1. 무제한의 치료비 혜택 : 근무중 부상으로 관련되는 모든 치료비는 100%의 혜택을 받는다.
 2. 이직에 대한 보상 : 작업중 부상으로 인하여 이직을 해야되는 경우 overtime pay 를 제외한 정상시 봉급에 비례하여 보상 받게된다.
이 비례율은 부상시의 결혼여지나 자녀수에 따라 정해진다.(Table 참조)
부상을 당하고 부터의 이직 기간이 3 일이내인 경우는 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기간이 3일 이상 14일 미만인 경우는 처음의 3일은 보상기간으로 계산되지 않게된다. 그 기간이 연속하여 14일 이상일 경우는 처음의 3일도 보상혜택을 받게된다.
 3. 연금불입에 대한 보상 : 작업중의 부상이나 병이 심하여 평생을 이직하게 되는 경우는 매월 적립되는 연금의 금로도 위해 기술한 이직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제도로 보상 받게된다.

4. 사망에 대한 보상 : 작업중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그 부인과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 보상은 사망 당시의 월급의 60%(부인만 있는 경우)에서 70%(부인과 자녀가 다섯이상인 경우) 사이에서 정해진다.
또한 첨가되어 \$800.00 의 연찰과 \$7,000.00 까지의 장례비가 유가족에게 즉시 지불 되어진다. 미망인이 후에 재혼하게되는 경우는 위의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혜택은 중지하게되나 법이 정한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게된다. 그러나 유자녀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자녀들이 18세가 될때까지(또는 full-time 으로 학교를 다니게 될때는 23세 까지) 계속하여 지불 되어진다.
5. 영구성 부분 불구(지체 불구)에 대한 보상 : 법은 한눈을 실명하였을 경우 시각 기능과 한다리를 잃었을 경우 동등 몇가지 영구성 부분 불구예대하여 얼마를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정확한 보상액을 규정 하고 있다. (예 : 한눈의 실명 경우 \$7,200.00)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구성 부분 불구예대하여 정확한 보상액을 법으로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자격 있는 의사가 결정하는 불구정도, 본인이 받는 육체적, 심리적, 마귀등을 고려하여 그때 그때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불구 보상액의 법정 액수는 \$30,000.00 이다.
6. Rehabilitation center : 노동청은 세애크에도 여러군데에 다목적 Rehabilitation Center 를 운영 하고 있다.심한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매일의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신체능력을 가능한 한도까지 되찾게하여 아울러 앞으로의 직장에 대한 자신감을 불려 넣어 주는 데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주정부 Counselor 들은 부상자들이 다시 생산성 있는 직장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한 고용주들로 하여금 그들을 고용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면에서 도와 주고 있다.

작업중 부상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매월 보상액표
(보상액은 어떤 경우든지 본인이 받는 정상월급의 75%이상을 초과못함)

결혼관계	자녀수	비례보상률	최저보상액
기혼	다섯이상	75 %	\$352.00
미혼	다섯이상	70 %	\$322.00
기혼	넷	73 %	\$329.00
미혼	넷	68 %	\$299.00
기혼	셋	71 %	\$306.00
미혼	셋	66 %	\$276.00
기혼	둘	69 %	\$283.00
미혼	둘	64 %	\$253.00
기혼	하나	67 %	\$252.00
미혼	하나	62 %	\$222.00
기혼	없음	65 %	\$215.00
미혼	없음	60 %	\$185.00

액들 들어 월급이 \$7,300 이고 부인과 자녀를 셋을 둔 가장이 작업중 부상으로 인하여 14 일 이상 연속하여 몇달을 이직하게될 경우는 이 사람은 자신의 월급의 71 % 인 \$923.00씩 매월 보상 받게됨.



Five Seas

오대양 식품점

전화: 363-6850 . 365-9844

- 한국식품
- 미국식품
- 일본식품
- 각종젓갈류. 김치
- 인형과 마스크트 일체
- FOOD STAMP 취급



위치: 543 N.E. NORTHGATE WAY SUITE C. SEATTLE, WA. 98125

영업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 식당 개업 (FOUNTAIN RESTAURANT)

어려본의 아담하고 조용한 외식처는 EVERETT 한국식당이 아주 좋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넓고, EVERETT 시 EVERGREEN WAY 41st ST 에서 MUKILTEO FERRY 쪽으로 FOREST PARK 을 넘어서자 바로 오른편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Fwy Exit 192)



메뉴

- 불고기 백반
- 불갈비 백반
- 육 계 장
- 냉 면
- 비빔 밥
- 잡채 밥
- 짜장면
- 만두국
- 볶음밥
- 탕수육
- 새우튀김
- 기타

영업시간

월-목요일 10:00-8:00
 금요일 10:00-9:00
 토요일 11:00-9:00
 일요일 휴업

(단, 10명 이상 단체 예약시 모실수 있습니다)

216 OLYMPIC BLVD, EVERETT, WA. 98203

(206) 258 - 3220



편집 후기

고민 어려본 안녕 하십니까? 한 영육양에 되어 9월호 편집을 맡고보니 서글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은 중요하다고들 합니다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식으로 편집을 끝마쳤는지 본말하기 어렵습니다. "한인회보" 하면 이곳 씨애크에 거주하신 고민들에게는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인 Communication 인줄 압니다. 이 회보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한인사회의 주춧돌이 되자면 고민 어려본들의 회보가 되어야 할것이며 어려본들의 공장이 되어야 될줄도 압니다. 유익한 정보,와 비장애 두신 깨박한 지식,과 고민사화와 미국사회에서의 고민 활동 상황, 비판적인 밑은 통합력 등으로 훌륭한 글을 보내주셔서 이 회보 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단연로 이 씨애크 한인회보는 그 어느 곳의 회보 못지않은 희망찬 우리 고민들의 대박의 공장이 될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있으며 이런 소망이 저 개인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원 합니다. 광망이 끝난 9월의 회보를 직송한 마음으로 찍 놓습니다.

김 상 순

김종구 회계 사무소

세금, 회계 및 사업에 관한 일이면 다변과 경험있는 "공인세무사" 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약력: (미국) • 현 NEW ENGLAND FISH CO. 의 CHIEF TAX ACCOUNTANT - 4년.
 • 재무성-IRS 의 "공인세무사" 시험 합격.
- <한국> • 한국 "공인회계사 (CPA)" - 8년.
 • 충주비로 및 전해화학(제수비로) CO - 10년.
 • 고려대학교 상대졸.

- 업무: • 회계 장부 일체
 • 중소기업의 각종세무보고.
 • 개인 INCOME TAX 보고
 • 세무, 경영 및 투자상담.

절대기밀보장과 신속, 정확한 서비스로 담가 봉사

사무실: KIM CHONG KOO TAX SERVICE
 13051 37TH AVE. N.E.
 SEATTLE, WA 98125

(집) (206) 367-0655 9후 5시 이후 및 주말
 (사무실) (206) 281-1420

한인 회비를 납부합니다

한인 회비는 한 가정에서 년 15불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다 소고과한 행동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회는 여러분을 위한 봉사 센터로서 한인교도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돕기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수련원이 없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이라는 말과같이 모두가 힘을 합하면 한인회 운영을 좀더 잘할수 있었습니다. 봉사센터운영, 회보발행등 저지않은 경비를 증명하는데는 여러분의 협조없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한인회는 결을 발휘할일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한인회비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이 일에 무관심하게 지내시는 교도들께 협조를 바랍니다. 보내실때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되 수표에는 주소및 전화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 WA 98124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이정순	\$15.00
황창호	\$15.00
전종모	\$15.00
박성수	\$15.00
박백길	\$15.00
한만섭	\$15.00

FARMER'S INSURANCE GROUP

Symbol of Superior Service

정호연
 GOOD STUDENT DISCOUNTS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NON-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454-6503

555 116th N.E. Suite 206 | Bellevue, WA 98004



그랜드 식품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 미래를 지향하는 그랜드 식품점,
 나 날이 발전하는 시애틀 코먼 여러분 속에. 저희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맛을 생생껏 전해드릴수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하옵니다.
 갈비와 불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식품부

- 각종 동양식품
- 풍성한 채소와 과일
- 즉석에서 썰는 불고기

8512 20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206) 525-8334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MR & MRS MANSUP HA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